

# 상쇄전략(Offset Strategy)의 관점에서 본 북핵 대응 방향

신범철



이 글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매주 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 세미나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저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세미나일자 2017. 7. 28.

발 표 신범철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토 론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조창래 한미연합사령부 기참차장  
고윤주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

발 행 일 2017년 8월 9일

발 행 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편 집 김자희 연구원

디 자 인 역사공간

인 쇄 웃고문화사

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01-03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우)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http://www.ifans.go.kr>

E-mail: [ifans@mofa.go.kr](mailto:ifans@mofa.go.kr)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 상쇄전략(Offset Strategy)의 관점에서 본 북핵 대응 방향

## CONTENTS

왜 상쇄전략인가?	01
미국의 상쇄전략 개념과 교훈	04
상쇄전략과 북핵 대응 방향 구상	07
주요 고려사항	14
맺음말	26



---

## 1. 왜 상쇄전략인가?

»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로 인해 북핵 위협이 고도화 되고 있는데 반해, 국제 사회의 비핵화 노력은 한·미·일과 중·러 간의 인식차로 인해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신정부는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 군사적 신뢰구축 및 이산가족 문제 논의를 위한 대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중국은 비핵화 회담과 평화체제 논의의 쌍궤론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자는 쌍중단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이를 지지하고 있으나 한·미·일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임.

»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과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고려 시 현재와 유사한 상황이 장기 간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여건은 점점 더 악화될 우려가 제기됨.

- 미·중 간 북핵 공조의 제한으로 효율적 대북 제재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국이 보다 강도 높은 대북제재에 동의한다 해도 그 이행과정에서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배려할 가능성이 존재함.
  - 북한의 경우 '핵능력 증강이 곧 더 큰 보상'이라는 교훈을 얻어온 차에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핵무기체계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대화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 ※ 기존의 북핵 대응 전략을 뛰어넘는 새로운 전략의 수립 필요성이 증대됨.

» 상쇄(offset) 개념은 '불리한 여건을 보상하는 비대칭적 수단'들을 의미하며, 주로 군사적 경쟁에서 사용되는 표현임. 상대와 비우호적인 경쟁에서 맞붙기보다는 경쟁을

---

상쇄(offset) 개념은 상대와 비우호적인  
경쟁에서 맞붙기보다는 경쟁을 보다  
우호적인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킴  
으로써 상대가 이길 수 없도록 만들거나  
상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만드는 것..

---

보다 우호적인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변화  
시킴으로써 상대가 이길 수 없도록 만들거나  
상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만드는 것임.<sup>1)</sup>

● 상쇄전략(offset strategy)은 보다 우호  
적인 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전략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잠재적 적들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우위를 유지하는 방책을  
강구하는 것임. 미국 국방부에서 주로  
개념화 되었고, 2014년 11월 3차 상쇄  
전략이 제시된 바 있음.<sup>2)</sup>

» 북한 핵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바라본 상쇄전략은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불리해지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책을 의미함.

- 상쇄의 개념을 투영해서 볼 때 첫째, 대화의 측면에서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이어  
가면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주변 여건을 만드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이는 경쟁을 보다 우호적인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접근이 될 것임.
- 둘째,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비대칭 전력을 극대화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드는  
접근이 될 것임.

1) "As offset is some means of asymmetrically compensating for a disadvantage, particularly in a military competition. Rather than match an opponent in an unfavorable competition, changing the competition to more favorable footing enables the application of strengths to a problem that is otherwise either unwinnable or winnable only at unacceptable cost."의 의역 내용임. [https://en.wikipedia.org/wiki/Offset\\_strategy](https://en.wikipedia.org/wiki/Offset_strategy) 참조.

2) 척 헤이글(Chuck Hagel) 미 국방부장관이 2014년 11월 15일 레이건 국방 포럼(Reagan National Defense Forum) 연설을 통해 제시한 것으로 새로운 국방혁신이니셔티브(Defense Innovation Initiative)를 제3의 상쇄 전략으로 일컬으며 제시한 내용임. 미 국방부 홈페이지 [https://www.defense.gov/News/Speeches/Speeches\\_View/Article/606635/](https://www.defense.gov/News/Speeches/Speeches_View/Article/606635/) 참조. 국방혁신이니셔티브를 상쇄전략으로 부르는 것처럼 상쇄전략이 과거에 없던 내용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기존의 정책을 상쇄라는 개념 속에서 재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물론, 상쇄전략 역시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북핵 정책인 대화와 압박의 연장선에 있음. 다만 상쇄전략에 기반한 접근은 다음의 몇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새롭고 또 유리한 정책적 대안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판단됨.

● 첫째, 북한 핵문제를 보다 현실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북한은 현재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임. 상쇄개념을 통해 상쇄 시켜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정책 판단을 도울 수 있음.

● 둘째,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지금까지는 북한의 비핵화 대화 복귀와 중·러의 협조에 많이 의존하는 방식이었음. 우리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함으로써 비협조 세력에게 부담을 주는 방법을 추가적인 해법으로 강구할 수 있음.

● 셋째, 우리 스스로의 외교·군사적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됨. 우리 스스로의 장점을 알고 이를 극대화시킬 때 북한 비핵화는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 유지와 미래지향적 역량 건설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북핵 해법과 관련한 우리의 상쇄전략이 무엇이 될 수 있을지를 외교·군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함.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미국의 상쇄전략 개념과 교훈을 살펴보고, 한국적 북핵 상쇄전략의 개념과 구체적 대안들을 살펴보기로 함.

---

상쇄전략의 관점에서 북한 핵문제를 바라볼 때, 첫째, 대화의 측면에서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면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주변 여건을 만드는 방법과, 둘째,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비대칭 전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고려..

---

## 2. 미국의 상쇄전략 개념과 교훈

➤ 미국은 일찍부터 국방 분야에서 상쇄전략 개념을 발전시켜 왔으며, 경쟁국에 대한 한 차원 높은 기술 혁신으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기본적으로 기술적 혁신을 근간으로 작전개념과 군 조직을 혁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대칭적 군사 우위를 유지한다는 개념임.

- 미국에 대한 도전 국가들의 전쟁에 대한 손익계산 교정을 통해 전쟁을 억지하고 (거부적 억제), 전쟁 발발시 대규모 보복 위협을 가시화함으로써 상대가 도발해오지

못하도록 (보복적 억제) 하는 것임.

- 상쇄전략은 1950년대 초반 아이젠하워 (Eisenhower) 대통령의 ‘New Look’ 정책과 1970년대 중반 브라운(Harold Brown) 국방 장관의 ‘offset strategy’ 그리고 2010년대 중반 헤이글(Chuck Hagle) 국방장관의 ‘third offset strategy’로 이어지며 발전해 왔음.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 1> 참조)

미국에 대한 도전 국가들의 전쟁에 대한 손익계산 교정을 통해 전쟁을 억지하고, 전쟁 발발시 대규모 보복 위협을 가시화함으로써 상대가 도발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표 1> 상쇄전략 주요 내용<sup>3)</sup>

	제1차 상쇄전략	제2차 상쇄전략	제3차 상쇄전략
시기	1950년대 New Look Strategy	1970년대 Assault Breaker Program	현재
대상	소련	소련	고능력 적(중·러)에 집중, 다양한 적을 상정
중점 사항	전략핵무기	정밀타격무기	로봇공학 + 무인화 + AI
핵심 기술	핵의 소형화	디지털 마이크로 프로세스, 정보기술, 신 센서, 스텔스	AI, 로봇, 인간과 기계의 협업, 에너지무기, 사이버, 센서
작전 개념	대량보복	효율적인 전력투사를 통한 공지전	개량, 생존성 개선, 효율적인 협력, 사이버를 통한 JAM-GC
기술 개발 방법	DoD 자체 개발	DoD 자체 개발	민간 산업기술의 적극 도입

3) 박상현, 신범철, 백민정, 권보람, 『아태재균형정책 이후 미국 군사전략의 변화와 한미동맹』(한국국방연구원, 2016), 71쪽.



» 현재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3의 상쇄전략은 첨단기술의 활용을 통한 경쟁국과의 우위 확보가 중점을 이루고 있음.

● 상쇄전략 지향점으로는 △미군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전력을 투사하는 능력, △경쟁국의 전력투사 시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 △핵과 (첨단)재래식 전력 모두에서 확고한 우위 유지를 제시함.

● 주요 개발 전력으로는 경쟁국의 A2/AD와 정밀타격 능력 개선에 대응하기 위한 △지상타격무기와 공중전 무기의 개량과 신 무기개발, △가성비 높은 작전능력과 작전지역 방어 능력 개발, △잠수함과 해저 능력의 개선, △인간과 기계의 협력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사이버와 전자무기 개선, △신 작전개념 등을 제시하고 있음.

» 한반도 문제에 있어 상쇄전략의 교훈은 군사적 의미에 머무르지 않음. 오히려 상쇄전략의 추진 배경, 개념 및 적용 원리 등이 우리 안보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함.

● 미국 '전략 및 예산평가 센터(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에서는 1, 2차 상쇄전략의 교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음.<sup>4)</sup>

- 미국이 처한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한 균형 있는 전략 수립 필요성 제기 (핵, 재래식 등 포괄적 위협 인식)
- 비대칭적 위협에 대한 군사적 보복만이 아닌 유연한 대응 병행
- 국가 안보이익 실현을 위한 비밀 작전의 신중한 활용 필요성 강조
- 기술적 우위의 활용을 통한 전략적 우위의 확보, 유리한 환경의 조성
-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비첨단 수단의 적절한 유지 (high low mix)
- 전략의 지속성 유지와 정부 기관별 임무 명확화

4)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Toward a New Offset Strategy (2014) summary, pp 5-21.

---

상쇄전략의 교훈은 군사적 의미에  
머무르지 않으며 상쇄전략의  
추진 배경, 개념 및 적용 원리 등이  
우리 안보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함.  
첫째, 위협에 대한 냉정한 현실인식과  
균형 있는 전략의 필요성, 둘째, 비대칭  
역량에 대한 고민, 셋째, 유리한 환경  
조성을 통한 목표 달성의 지속적 추구,  
넷째, 전 정부적(whole of governments)  
접근이 요구됨.

---

» 종합해 볼 때, 상쇄전략은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음.

● 첫째, 위협에 대한 냉정한 현실인식과  
균형 있는 전략의 필요성임. 상쇄전략의  
기초에 흐르는 전략적 인식은 상대방의  
능력과 자신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현실적 대안이 근간을 이루고 있음.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의도와 역량을 정확히  
읽고, 그에 대비하는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 둘째, 비대칭 역량에 대한 고민임. 상대가  
가진 능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상쇄하기 위한  
자신의 비대칭적 역량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 같은 맥락에서 한국이 가진 비대칭적 역량을 어떻게 하면 더욱 차이 나게  
함으로써 북한의 핵능력을 상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함.

● 셋째, 유리한 환경 조성을 통한 목표 달성의 지속적 추구임. 상대를 직접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비대칭 능력을 활용하여 유리한 전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거부적  
억제를 달성하는 것에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음. 같은 맥락에서 우리 또한 어떻게  
비대칭적 능력을 활용하고, 유리한 전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 것인지 고민해야 함.

● 넷째, 전 정부적(whole of governments) 접근임. 어느 특정부처만이 아니라 미국  
관련 전 정부부처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음. 같은 맥락에서 한국 내 각 정부 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명확히 식별하고 각각의 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임무를 적극  
이행해야 함. 특히 외교와 국방의 기능적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임.

### 3. 상쇄전략과 북핵 대응 방향 구상

#### (1) 현실적 상황 인식

» 상쇄전략의 관점에서 북핵 대응 방향을 구상하기 위한 첫 단계는 상대(彼)편이라 할 수 있는 북한과, 내(我)편이라 할 수 있는 주변국과 한국의 역량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임.

● 손자병법에는 전략상황 인식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 있음. 지피지기자 백전불태(知彼知己者, 百戰不殆), 부지피이지기 일승일부(不知彼而知己, 一勝一負), 부지피지기 매전필태(不知彼不知己, 每戰必殆) 임.

● 상대와 나를 모두 잘 알 경우 위험한 상황을 절대 겪지 않지만, 나만을 알고 상대를 잘 알지 못할 경우에는 한번을 이기고 한번을 지게 되며, 나와 상대를 모두 알지 못할 경우 매번 위태한 상황을 맞게 된다는 의미임.

» 북한의 위협(능력과 의지)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기초정보의 부족으로 실질적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 의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은 체제 보존을 위해 극단적인 폐쇄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북한·북핵 정책 추진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 정보가 부족한 상황임. 그 결과 최적의 의사결정을 도출하기 어려움.

- 북한의 리더십 동향 파악 → 잘 모름
- 북한군의 핵심전력 및 운용 원리 (핵 포함) → 잘 모름
- 북한의 경제 원리, 핵심 경제 동력 → 잘 모름
- 북한 중앙/지방 당/행정 주요 인사 → 연결 네트워크 부재

● 김정은 정권은 지속적으로 핵보유를 천명하며 끊임없는 성능 개량 실험을 진행 중임. 핵능력 진전에 따라 보다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함.

● 북한의 게임플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sup>5)</sup>

북한은 ‘△지속적인 핵개발로 핵무기 및 ICBM 완성 추구, △국제압박이 정권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심각해질 경우 전술적 대화 재개, △국제압박이 완화될 경우 핵·미사일 개발 재개’의 패턴을 반복...

북한은 ‘△지속적인 핵개발로 핵무기 및 ICBM 완성 추구, △국제압박이 정권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심각해질 경우 전술적 대화 재개, △국제압박이 완화될 경우 핵·미사일 개발 재개’의 패턴을 반복할 것임.

● 북한의 핵개발은 막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김정은의 의지, △기술적 완성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도저히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아 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적절한 압박 수단이나 환경 변화 없이 북한이 대화로 복귀하거나 또는 신의성실에 입각한 대화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버리고 냉철히 보아야 함.

➤ 북핵 문제와 관련한 대주변국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 가능성과 △한국의 주변국 협력 역량을 살펴보아야 함.

● 중국의 부상과 함께 미국에 대한 중국의 경쟁의식도 함께 부상하고 있는 모습이며,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도 미국과의 경쟁을 반영하는 듯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기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이나 반중친미(反中親美)전환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미국 또한 중국의 변화를 인지하면서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 다른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음. 그 결과 북핵 문제와 관련한 미·중 간 협력 공간은 점점 더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

5) Sung-han KIM, "Regime Transformation for a Denuclearized North Korea," 24th Korea Forum (Hosted by Institute of Korea Studies, June 27, 2017) pp.1-2.

---

●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미·중 정상회담 이후 일시적인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나, 현재로서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전략적 협력은 기대하기 힘들어 보임.

● 한편, 미국이나 중국의 첨예한 이해가 대립되는 영역에 있어 한국의 외교적 역량은 한계가 존재함. 미·중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협상으로 견인할 역량이 부족하며, 오히려 사드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적 압력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량은 △북한에 대한 외교·경제적 압박 능력, △북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 △북한에 제공할 인센티브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이들 능력 모두 제한적임.

● 한국은 튼튼한 한미동맹과 국제 네트워크, 그리고 국제사회의 비확산 규범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전개해 왔으나 그 강도는 제한적이었으며, 2010년 5.24

조치 및 2016년 개성공단 철수 이후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에 한계가 존재함.

● 군사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따라 (한미동맹을 배제할 경우) 대북 확전우세 (escalation dominance)를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재래식 전력으로 핵을 상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동시에 북한 불안정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주변국 개입 없이 한국 주도로 북한을 안정화시키고 통일로 연계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임.

● 북한 비핵화 유도를 위해 북측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안보 인센티브 역시 북한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음. 북한은 한국의 경제·안보 보장 약속보다 자신들의 핵무기를 더욱 신뢰할 것임.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량은  
△북한에 대한 외교·경제적 압박 능력,  
△북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 △북한에  
제공할 인센티브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이들 능력 모두 제한적...

---

## (2) 한국의 비대칭 역량 점검

» 상쇄전략은 비대칭적인 우위를 환경적 우위로 바꾸어 내는 방책임. 따라서 우리의 주요 역량을 비대칭적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 비해 한국이 우위를 점하는 외교, 안보, 국방 이슈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들 이슈를 어떻게 더 차이 나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함.

북한에 대해 한국이 비대칭적 우위를 보이는 영역은 첫째, 한미동맹, 둘째, 글로벌 네트워크, 셋째, 재래식 첨단 군사력이며, 미국의 확장억제가 잘 작동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첨단전력에서 월등한 우위를 점하게 될 경우, 북한의 핵위협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음. 넷째, 민간 부분의 기술적 우위, 다섯째, 사회 시스템, 즉 민주주의와 경제적 우위임.

» 북한에 대해 한국이 비대칭적 우위를 보이는 영역은 첫째, 한미동맹임. 한미동맹을 통해 한국은 북한에 비해 정치, 외교, 군사적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음. 따라서 동맹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한미동맹의 강화는 북한의 핵 보유를 상쇄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북한의 동맹 분리(decoupling) 시도를 차단하고 확고한 안보를 구축하는 방책임.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비 분담 등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동맹 현안을 조기에 해결하고, 보다 강력한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야 함.

» 둘째, 글로벌 네트워크임. 한국은 국제사회의 중견국으로서 당연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비확산체제 위반과 인권유린 등으로 외교적 공간이 협소함.

● 한국의 외교적 네트워크를 확산시키고 주요 권역 및 거점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함으로 북한이 따라올 수 없는 외교적 자산을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 다만, 자국이 중심의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대북 압박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을 인식해야 함.

---

» 셋째, 재래식 첨단 군사력임. 북한은 핵개발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인한 재래식 군사력 운용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일부 주체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나, 한국의 첨단 군사력은 북한과의 재래식 군사력 경쟁에서 비대칭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

● 재래식 무기로 핵무기와 경쟁할 수는 없음. 그러나 미국의 확장억제가 잘 작동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첨단전력에서 월등한 우위를 점하게 될 경우, 북한의 핵위협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음. 즉, 핵무기를 활용한 정치적 목적 달성과 별개로 전면전이나 국지적 도발 전개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임. 재래식 전력의 비대칭적 발전의 전략적 함의의 이해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 넷째, 민간부분의 기술적 우위임. 한국은 북한에 비해 다양한 기술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음. 미국이 추진하는 제3의 상쇄전략도 민간의 기술적 우위에 기반하고 있음. 특히 무인기, 무인잠수정 등 감시정찰 기능 등에서 북한에 비대칭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비대칭적 장점을 제공함.

● 민간 및 군사기술의 획기적 발달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이를 제압할 수 있는 실질적 힘이 된다는 점에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모아지고 또 이행되어야 함.

» 다섯째, 사회 시스템, 즉 민주주의와 경제적 우위임. 북한 주민이 부러워하는 한국 사회의 강점을 더욱 차별화함으로써 북한 정권 스스로가 궁극적 체제 경쟁에서는 자신들이 실패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할 경우, 도발 의지는 상쇄될 수 있을 것임.

● 핵무기를 개발해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억압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눈부신 성장은 북한 내 민심 이반과 연계될 수 있음. 이 경우, 김정은 체제의 내구력이 약화될 것이므로 우리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함.

### (3) 북핵 대응 방향 구상

대북 비대칭적 우위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  
대화의 측면에서는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변 여건을 조성하고, 군사적 측면에서는 핵을 사용하고 싶어도 그에 따르는 피해가 크다는 점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 비대칭 전력 극대화가 필요...

» 상쇄전략의 관점에서 북핵 대응 방향을 구상한다면 대북 비대칭적 우위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임. 같은 관점에서 외교, 안보, 국방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안 강구가 필요함.

● 대화의 측면에서는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며, 비핵화 회담으로의 복귀나 전략환경 조성 측면에서 북한의 우위를 상쇄하는 것임.

● 군사적 측면에서는 핵을 사용하고 싶어도 그에 따르는 피해가 크다는 점을 깨닫게

만드는 것임. 이를 위한 대북 비대칭 전력 극대화가 필요함. 향후 비핵화 협상 지연 시 북한의 핵능력 강화·핵보유 등을 가정하며, 한국의 군사적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임.

● 군사력 사용은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선택 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므로 구상에서 배제함. 현실적 북핵 해법으로서 보다 긴 호흡의 정책 전개를 전제로 함.

» 상쇄의 대상은 핵을 보유한 북한의 전략적 우위임. 핵이 없는 북한은 외교, 경제, 군사 어느 면도 한국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없음. 따라서 비핵화가 전제된다면 보다 대범한 대북 정책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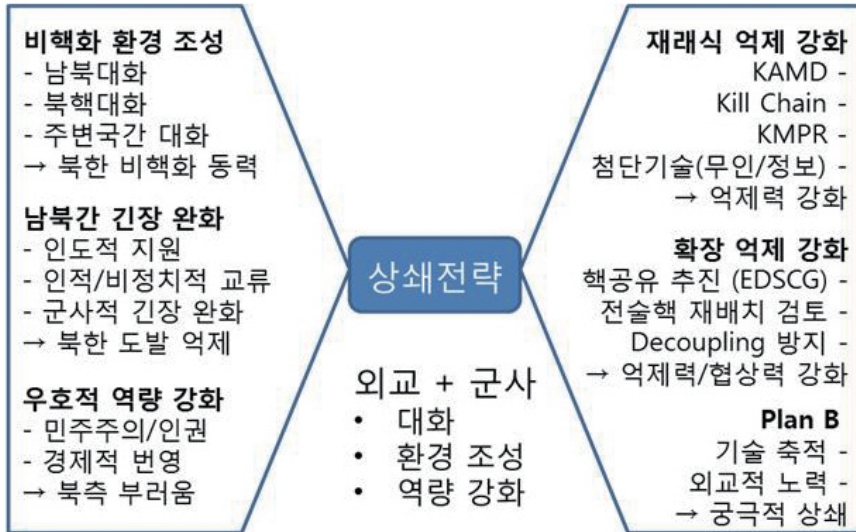
● 상쇄전략 차원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한 대화 노력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음. 비핵화 노력을 지속하며, 동시에 북한의 전략적 우세를 우리의 비대칭적 장점을 통해 상쇄해 나가는 것임.

● 따라서 신정부의 대북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음.



» 이상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여러 정책 옵션들을 동시에 상호보완적으로 적용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기본 구조는 다음 <그림 1>과 같은 모습을 지님.

<그림 1> 상쇄전략에 기반한 북핵 대응 방향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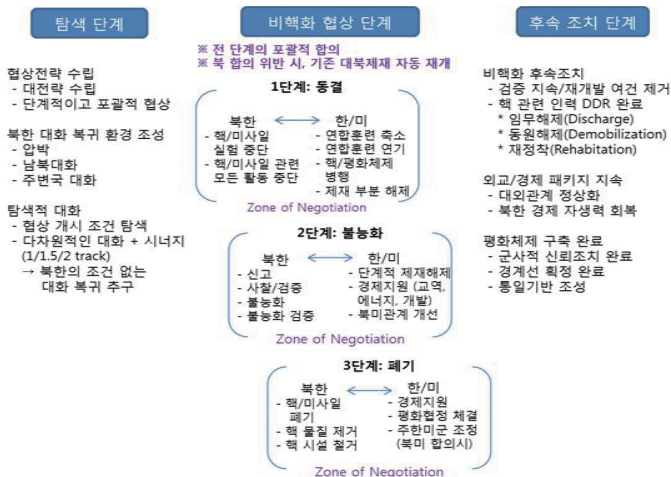
## 4. 주요 고려사항

### (1) 비핵화 협상 추진 환경 조성

» 비핵화 협상 자체의 추동력을 유지하는 것은 북한의 핵보유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동시에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음. 따라서 단기적으로 비핵화 대화가 재개되지 않더라도 동력을 유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실제로 북핵 협상안의 경우 <그림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다양한 대안들이 협상의 범위(zone of negotiation) 내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우리 측 협상안만을 고수하기 보다는 관련국 공동의 협상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촉진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임.

<그림 2> 북핵 협상 관련 범위/의제 개관<sup>6)</sup>



6) 그림의 내용 중 협상구간(Zone of Negotiation) 개념은 협상 시 의견이 오갈 수 있는 옵션들을 예시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며, 이들 중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어우러져 타협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임. 정부의 입장과 무관한 개인적 아이디어 차원의 내용임.

---

● 협상의 범위는 넓게 가져가도 좋으며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한에 줄 수 있는 보상은 가능한 최대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강력한 인센티브로 비핵화를 유인해야 하기 때문임.

● 다만 북한이 합의를 위반했을 경우 기존의 제재안들이 자동적으로 원상회복 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함. 그렇지 못할 경우 북한의 ‘합의-보상-파기’ 패턴에 악용될 수 있음.

●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변국과 비핵화 협상안을 조율해 내는 노력은 필요함. 북한을 더욱 고립으로 몰고 갈 수 있으며, 한국의 입장에 대한 중·러의 지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임.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이후에도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원유공급 중단, 북한 노동자 추방, 국경 밀무역 통제 등 고강도 제재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비핵화 환경 조성을 위해 주변국 간 또는 북한과 주변국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것도 필요함. 한국이 주도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한국이 빠진 대화체를 반대할 필요가 없음.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면 미·중 간의 대화, 북·미 간 대화 등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함.

---

**비핵화 협상 자체의 추동력을 유지하는 것은 북한의 핵보유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동시에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어...**

---

» 한국의 적극적 행보가 주변국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해야 하며, 동시에 추진 과정에서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 △동결입구론의 위험성 인지, △검증의 어려움, △평화체제의 모호성 등에 유의해야 함.

● 미·중 간의 불신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 북핵 협상안의 도출에 매우 유의해야 함. 자칫 ‘미국으로부터는 중국편,

---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 △동결입구론의 위험성 인지, △검증의 어려움, △평화체제의 모호성 등에 유의...**

---

중국으로부터는 미국편'이라는 오해를 사기 쉽기 때문임.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잘 반영한 한국 고유의 비핵화 협상안을 개발하고, △한·미 공조를 통해 공동의 협상안으로 발전시키며, △중·러와 의견을 조율하며 최종 조율된 수정안을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함.

●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면 대화에 복귀한다고 주장할 경우, 이는 기만 행위일 가능성에 유의해야 함.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게 될 경우 북한은 다음단계로의 진행을 위한 시간을 끌며 자신의 지위를 공고화 하려 할 것임. 그 결과, 협상에 진전도 파기도 없는 상황이 지속되며 북한에게 끌려가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동시에 국제비확산체제의 파괴를 묵인하는 또 하나의 나쁜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음.

● 동결입구론도 북한에게 악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동결이 마치 목표인 것처럼 논의가 진행될 때 북한은 ICBM 능력 동결을 명분으로 기존의 핵무기를 보유하려 할 가능성이 있음.

● 검증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어렵다는 점(technically complicated and politically difficult)을 이해해야 함. 북한의 핵 활동 신고의 범위와 신뢰의 문제로 인해 완전한 검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함. 그럼에도 북한에 대한 보상은 진행되므로 국내정치적인 부담도 커질 것임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함.

● 평화체제에 대한 남북 간 인식차가 존재함을 이해해야 함. 한국의 경우 비핵화 과정에서 남북 간 상호 체제 인정, 교류 확대,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하면 평화 정착이 가능하다고 인식하는데 반해, 북한은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한반도에 있는 한 평화 정착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 중국적으로 주한미군 문제가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며 협상을 준비해야 함.

## (2) 비핵화 협상 추진 과정에서의 남북 간 긴장 완화

➤ 미래 어느 시점부터는 핵을 보유한 북한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필요가 없음. 북한이 핵위협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북핵 논의 진전과 무관하게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함.

● 현재 정부는 △적대행위 종식을 위한 군사회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 △평창올림픽 참석을 위한 스포츠 회담, △기타 정부 간 당국자 회담을 제한한 상황인데, 그 성과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지속적인 대화 노력이 필요함.

한국의 의지를 의심하는 주변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북한의 비협조를 비판하게 만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대외적으로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며 한국 정부의 우호적 의지를 보여주어야 함. 인도적 지원의 경우 가능하면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도 현금으로 교환될 가능성이 적은 물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함.

● 북한과의 인적 교류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산가족 상봉이나 평창올림픽 참석 외에도 다양한 문화행사 상호 교차 개최를 통해 신뢰의 관행을 축적해 나가야 함. 다만, 이 과정에서도 북한 내 행사개최 시 현금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교류 확대가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해쳐서는 안 됨.

● 군사분계선이나 서해 북방한계선 등에 있어 군사적 신뢰구축을 강조하며, 군사 당국자 간 회담을 제의·개최하며 긴장 완화를 추진해야 함. 북한의 호응이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제안을 하며 여건을 개선해가고, 북한 도발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함.

»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추진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남북 간 신뢰조성을 의미

북한이 핵위협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북핵 논의 진전과 무관하게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추진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남북 간 신뢰조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

---

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함.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를 얻어내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함.

● 북한은 단시간에 변화하지 않음. 남북 간 신뢰구축에 장시간이 소요됨을 인식해야 함.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북한과의 대화에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함. 하나는 단계적인 신뢰구축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임. 이는 군사적 측면의 억제와는 다르지만,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핵보유 장점을 상쇄한다는 접근임.

●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노력이 미국의 대북압박 정책과 충돌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미국은 현실의 위협으로 다가온 북한 ICBM 능력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음.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이 높지 않음. 한국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이 미국의 비핵화 노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리고 철저한 정책공조를 유지해 나가야 함. 동맹이 가장 큰 상쇄 자산임을 인식해야 함.

●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이지만, 북한이 그것을 원하거나 허용할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음. 명분보다는 실질적 주도권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화의 형식이나 의제를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음.

### (3) 북한의 부러움을 사는 한국의 매력 확산

≫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은 북한 체제로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임. 이러한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더욱 발전시키고 부드럽게 알림으로써 북한의 부러움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공포정치로 인해 사회통제가 어느 정도 지탱되고 있지만, 보다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갈망은 인간의 본성이기에 북한 주민은 물론이고 지도부 역시 한국 사회의 성숙한 측면에 대한 동경이 존재할 것임.

●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한국의 번영에 대한 북한의 동경을 낳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음. 한국의 경제적 번영은 최근 정치적 박해보다는 경제적 기회를

---

찾아 넘어오는 탈북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내에서도 어느 정도 확산된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한국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이 북한에 자연스럽게 전파될 경우 김정은 체제의 이완 요인이 될 것임. 또한, 체제 경쟁에서 이미 실패했다는 인식의 확산은 중장기적으로 도발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이 북한 주민에게 잘 설명되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전파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함.

● 탈북자들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빈부 격차 및 소외의 문제를 직접 겪고 있음.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의 하위계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북한 주민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은 감소할 것임. 한국의 매력 증대에 앞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함.

● 또한, 과거 한국 정부의 대북 정보유입의 경우, 적지 않은 효과가 있었음에도 다른 한편으로는 공세적 방법이 문제로 제기됨. 북한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비춰지며 그 효과가 널리 확산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함.

●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상대적으로 한국의 장점을 알리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 김정은 체제 비난보다는 한국 사회를 잘 알리는 TV 드라마나 연예 방송이 더욱 효과가 클 것임. 따라서 대북 정보유입의 목표도 북한 불안정 유인이 아닌, 한국의 매력 확산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 전달이 되어야 상쇄의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음.

#### (4) 재래식 억제 강화

» 한국군은 지난 30여 년간의 지속적인 국방개혁과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재래식 첨단 전력에 있어 북한에 대해 우세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북한의 핵전력을 상쇄할 수 있는 재래식 전력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북한의 전략 목표 달성을 억제

함으로써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 첨단 비대칭 전력을 구축해야 함.

● 현재 국방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3축 전략 (Kill-Chain, KAMD, KMPR)은 올바른 방향의 대응책임.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전에 이를 탐지하고 타격할 수

있는 역량(Kill-Chain),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주요 군사 및 민간 거점을 보호하는 역량(KAMD), 그리고 북한의 핵 도발시 복 수뇌부를 제거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은 북한의 핵능력을 상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임.

● 현재 한국형 3축 전략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정보·감시·정찰, 지휘통제 네트워크, 정밀타격, 정밀요격, 플랫폼 등 우리 군이 구축해야 할 핵심 첨단 기술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함.

● 동시에, 기존에 개발하지 못했으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실현가능해지고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을 통해 북한에 치명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래식 첨단 무기를 구비해야 함. 특히 이 분야는 미국의 제3의 상쇄전략에서 구상한 바와 같이 민간기술 활용 필요성이 제기됨. 우리 군이 구축해야 할 첨단 군사력 소요는 <표-2>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sup>7)</sup>

북한의 전략 목표 달성을 억제함으로써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 첨단 비대칭 전력을 구축,  
한국형 3축 전략 (Kill-Chain, KAMD,  
KMPR)은 올바른 방향의 대응책,  
정보·감시·정찰, 지휘통제 네트워크,  
정밀타격, 정밀요격, 플랫폼 등 우리 군이  
구축해야 할 핵심 첨단 기술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부여...

7)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새정부의 국방정책 방향』(2017. 7.) 70-71쪽 참조.



〈표 2〉 재래식 첨단 비대칭전력 구축을 위한 필수 기술 및 참고사례<sup>8)</sup>

	핵심 기술	참고 사례
정보 감시 정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식미사일 실시간 탐지 기술</li> <li>• 핵탄두 장착 미사일 조기 탐지 기술</li> <li>• 다기능/고해상 센서 (cm급)</li> <li>• 전체 센서 네트워킹 기술</li> <li>• 정보처리 및 분배 기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관련된 모든 기술 개발 중</li> <li>※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소형 위성 및 UAV 정찰</li> <li>• 핵탄두 식별 UAV 개발 중</li> </ul> </li> </ul>
지휘통제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간 센서-슈터 통합기술</li> <li>• 전투 플랫폼 간 소통 데이터 링크기술</li> <li>• 이동식 command-control 체계 구축</li> <li>• 다양한 전투 결심지원 기술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인/무인 합동 전투 네트워크 구축</li> <li>• 전투 결심지원 기술 구축</li> </ul> </li> </ul>
정밀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 방공망 돌파 미사일 다량 확보 (장사정/고위력/초정밀/초고속/스텔스)</li> <li>• 지능화/탐지/회피 기술</li> <li>• 벙커버스터 기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중국, 독일, 인도, 대만 관련 기술 개발 중</li> </ul>
정밀요격 (미사일 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지-추적-요격-확인 기술</li> <li>• 고기동 초고속 hit to kill 기술</li> <li>• 실시간 요격 교전통제기술</li> <li>• 탄두 내장물 식별기술</li> <li>• 동시 요격기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M3/THAAD/PAC3/PAAC-4 등</li> </ul> </li> <li>※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rrow-2/3, Iron Dome/Beom</li> </ul> </li> </ul>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인 플랫폼: 스텔스 구축함/잠수함 스텔스 전투기</li> <li>• 무인 플랫폼: UAV/UAS 등</li> <li>• 스텔스, 장기체공기술, 나노 기술 소형전자기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중국, 이스라엘 개발 중</li> </ul>
신기술 무기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에너지 레이더 기술</li> <li>•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기술</li> <li>• 초저주파 발생 기술</li> <li>• 고섬광 발생기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이스라엘 개발 중</li> </ul>

» 첨단 비대칭 전력 구축은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 잠재적 위협 대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나, 한국의 제한된 국방예산을 고려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함. 동시에 첨단 재래식 전력을 구비한다 해도 핵전력 대비 우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우발적

8) 전략문제연구소, 위의 각주, 첨부#1. 표의 내용을 필자 의견을 반영하여 재정리 한 것임.

---

정보·감시·정찰, 정밀타격, 지휘통제 네트워크, 정밀 요격 순으로 우선순위를 가져가고 신기술 무기체계는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거나 동맹국과의 공동개발 등의 방법, 우발적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현장에서의 신중한 작전 운용이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신속히 종결짓는 작전수행이 필요...

---

충돌에 주의해야 하며, 한국의 첨단 무기체계 개발이 주변국의 군비경쟁을 촉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현재 제한된 획득 예산으로 상기 전력을 동시에 모두 개발할 수 없음. 따라서 대북 억제력에 도움이 큰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 북핵 상쇄를 고려할 때 정보·감시·정찰, 정밀타격, 지휘통제 네트워크, 정밀 요격 순으로 우선순위를 가져가고, 신기술 무기체계는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거나 동맹국과의 공동개발 등의 방법을 고민해야 함.

● 작전 운용상의 신중함도 유의해야 함.

군사분계선이나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의 재래식 작전에 있어 한국군과 북한군의 역량 차는 더욱 벌어질 것임. 그러나 국지충돌의 확산 문제는 북한 핵위협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우발적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현장에서의 신중한 작전 운용이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신속히 종결짓는 작전수행이 필요함.

● 한국의 재래식 첨단 군사력 건설이 주변국의 우려를 야기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함. 중국과 러시아는 직접적인 우려를, 일본의 경우 자국이 원하는 미사일 능력 개발 필요성을 부각시킬 것임. 따라서 북한 핵위협에 대응한다는 점과 재래식 전력이 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5) 확장억제 강화

» 현재 한·미 양국은 맞춤형 억제전략 하에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강구 중임. 이를 위한 대화 체로 확장억제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를 구축, 관련 내용을 발전시키고

있음. 향후 미국과의 확장억제 협력은 작전적 수준에서의 핵공유를 추진해야 함.

● 한·미 양국은 2016년 6월 3단계 맞춤형 억제전략 방안을 마련하였음.<sup>9)</sup>

- 1)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는 미국의 핵·비핵 전력의 한반도 주변 전개
- 2) 북한의 핵사용 임박에는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 핵전력 선제 타격, 미국 핵무기로 북한 핵전력 타격 준비, 핵전력 준비태세 증강
- 3) 북한의 핵사용에는 한·미 국가통수기구가 단호한 조치 시행

● 한·미 당국은 4D(detect, disrupt, destroy, defend) 개념의 맞춤형 작전 이행 지침을 구체화하였음. 이는 한국형 3축 전략에도 반영되어 발전되고 있는 개념임.

● 3단계 맞춤형 억제전략 및 4D 이행 지침의 경우 개념적으로 잘 정비된 모습임. 문제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대한 신뢰도임. 최근 냉전기 유럽과 같이<sup>10)</sup> 북한이 ICBM을 개발한 이후 한·미 동맹의 분리(decoupling)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정책적 대안 강구가 필요함.

● 아직까지 한·미 양국은 핵 공동운용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음. NATO의 경우 독일, 이스라엘, 덴마크, 이탈리아, 터키 등 5개 국가가 미국의 B61

미국과의 확장억제 협력은  
작전적 수준에서의 핵공유를 추진해야...

9) 전략문제연구소, 앞의 각주 6, 54-56쪽.

10) 냉전기 유럽의 경우에도 구소련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디커플링 이슈가 심각히 논의된 바 있음. James Fugusson, "The Coupling Paradox: Nuclear Weapons, Ballistic Missile Defense, and the Future of the Transatlantic Relationship," in *Nato and European Security* by Alexander Moens, Lenard J. Cohen, and Allen Gregory (Praeger, 2003), pp.153-157.

---

전술핵폭탄을 자국 전투기에 탑재하는 훈련을 하고 있음. 한국도 NATO 수준의 핵 공유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임.

● 전술핵 재배치의 경우 복잡한 제한 요인이 있으나, 공포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북핵을 상쇄하는 하나의 방책일 수 있음. 현 단계에서는 이르다고 보지만, 향후 비핵화 대화가 개최되지 못하고 북한이 ICBM 개발을 완료한다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미국의 확장억제, 특히 핵우산 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주변국과 국내 반대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존재함.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행보가 필요함.

●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는 중국의 직접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큼. 동시에 핵확산 반대라는 명분을 약화시켜 비핵화 대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sup>11)</sup> 따라서 우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대안이라도 다각적 고려를 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함.

● 확장억제 강화의 경우 국내 여론의 민감성이 높은 영역인 만큼, 북한의 태도와 비핵화 대화의 전개, 한국의 안보적 필요성을 고루 반영해서 시기와 방식을 정해야 할 것임. 특히 한·미 간에 잘 조율된 정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임.

## (6) 다양한 플랜 B의 지속적 검토

➤ 미국의 국익과 세계전략, 한국의 전략적 가치, 한·미 동맹의 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위협으로 동맹이 이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따라서 과도한 걱정보다는 한·미 동맹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극대화하며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지켜내는 노력이 필요함.

11) 박휘락, "미 전술핵무기 한국 재배치에 대한 시론적 분석," 『신아세아』(24권 2호, 2017 여름), 51-52쪽.

---

» 북한 핵능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독자적 대안들에 관한 연구는 학술적 차원에서 보다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임. 북한 핵능력을 상쇄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력을 확충하고 외교적 해법을 끊임없이 강구해야 함.<sup>12)</sup> 이러한 노력은 북핵 해법과 관련한 Plan B 옵션을 더욱 폭넓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북한 핵능력을 상쇄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력을 확충하고 외교적 해법을 끊임없이 강구해야...

---

12)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비핵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도 △핵주기를 완성하여 핵물질을 보유할 수 있고, △H-2로켓 및 M-5로켓을 보유하여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으며, △대형 컨테이너용 소형 원자로나 심해탐사 잠수선용 소형 원자로 개발을 추진 중임.

---

## 5. 맺음말

» 한국은 북한에 비해 월등한 국가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킴으로써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되는 상황을 맞고 있음. 규범을 지키는 자가 규범 파괴자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는 국제관계의 모순임.

» 최근 북한의 태도를 볼 때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 핵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핵무기를 포기하기는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됨. 북한은 핵무기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화 요구에 담긴 ‘북한에 대한 보상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도 동시에 인지하고 있음. 김정은 체제에 위협이 될만한 아주 강력한 압박이 아니면 대화에 복귀하지 않을 것임.

» 따라서 이제는 같은 정책이라도 북한의 핵능력을 상쇄시키는 개념에서 접근해야 함. 남북대화나 비핵화 논의과정, 그리고 이러한 대화의 실패로 인한 핵협상 봉착 상황에 모두 대비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북한의 역량을 상쇄하는 방안은 일반적인 생각보다 다양함. 문제는 이를 어떻게 배합하여 정책으로 구체화 하는가임. 정부의 선택에 따라 그 배합의 비율이 다를 수 있고, 또 모든 대안을 동시에 전개할 필요도 없음. 이 글은 상쇄전략 차원의 북핵 해법의 필요성과 관련 대안들을 점검한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함.

» 한국은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는 모범국가이자,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평화애호국임. 동시에 미국이라는 세계최상의 동맹 파트너를 두고 있음. 아직도 전략환경은 한국의 편임. 따라서 북한의 핵위협이 커진다고 해서 또는 북한과의

---

대화를 위해서 지나치게 서두를 필요가  
없음. 우리의 전략적 선택에 기반한 차분한  
정책 전개가 필요함.

● 상쇄전략의 요체는 싸우기 전에 승리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임. 북핵 대응을  
위한 군사적 역량을 갖추고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는 주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용히 내실을 기하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함.

● 향후 북핵 문제 대응은 난이도 높은 정책 전개가 불가피하기에 국민적 지지가  
필수적임.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국민에게 진솔히 알림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끝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현재 비관적 여론이 비등하지만,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북한의 전략적 선택을 바꿀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음. 쉽지 않고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이제는 그 길을 시도할 시기가 도래하였음.

---

북핵 대응을 위한 군사적 역량을  
갖추고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는  
주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용히 내실을  
기하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

---





# CONTRARIA SVNT COMPLEMENTA

상반되는 것은 보완적인 것이다





